

나일론이 의생활 및 섬유산업발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1945년부터 1970년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교수 홍 병 숙

중앙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강사 정 미 경

目 次

I. 서 론

II. 나일론산업의 발달과 의생활의 변화

1. 나일론의 도입기(1945~1953)

2. 나일론의 수입 및 초기생산기(1954~1957)

1) 나일론의 수입

2) 나일론 양말 및 나일론 스트레치사(nylon stretched yarn)와 나일론 직물의 생산

3) 나일론 유행품목

4) 나일론 관련기사

3. 나일론 스트레치사 및 직물의 대량생산기(1957~1963)

1) 나일론 스트레치사와 직물의 대량생산

2) 나일론 유행품목

3) 나일론 관련기사

4. 나일론원사의 대량생산기(1963~1970)

1) 나일론원사의 생산

2) 나일론 유행품목

3) 나일론 관련기사

III.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인류는 의복의 적합한 재료를 개발시키기 위해 서 계속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새로운 의복재료의 개발은 그것의 특성을 이용한 디자인의 유행을 가져오는데 나일론, 인조피혁, 인조모피 등의 개발

은 모두 이러한 재료를 이용한 의복의 유행을 가져왔었다.¹⁾

나일론은 1927년 미국 듀퐁(De Pont)사의 캐로더스(Carothers)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어 1939년에 첫선을 보였다. 나일론스타킹이 인기를 누리게 되자 이어 많은 제조업자들이 나일론산업에 투자

를 하게 되었다.²⁾ 나일론이 처음 시판되었을 때 '꿈의 섬유'라 불릴 정도로 질기고, 매력있는 섬유였기 때문에 스타킹 등 여성의 기초의료를 비롯한 혼방섬유로서도 크게 환영을 받았으며, 타이어드, 로프, 어망사 등 산업용으로도 생산되었다.³⁾ 나일론이 처음 개발된 미국에서는 개발 당시부터 사회적 기대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폭발적인 수요와 함께 나일론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나일론은 우리의 의생활과 섬유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해방에서부터 6.25사변에 이르는 5년간은 일본의 잔여물자, 미군의 군수품, 국내생산공장의 제품, 미국원조물자, 마카오수입품, 밀수품, 농가의 무명 등으로 의류공급을 간신히 해결하는 상황이었으며, 6.25사변을 치른 3년간은 미국의 원조물자와 미군군수물자의 유출품으로 충당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의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나일론이 미군을 통하여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다.⁴⁾ 국내에 소개된 나일론은 질기고 손이 덜간다는 장점으로 양말에서 셔츠, 블라우스, 한복감 등 순식간에 보급되어 가히 혁명적이라 할만한 대 유행으로 복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다.

국내의 나일론 산업은 1960년대 중반 원자재 수입 대체 산업으로 출발하여 생산이 시작된 이래 70년을 기산하여 1993년 현재 연평균 12%를 상회하는 고율의 성장을 이루어(동기간 중 세계 평균 성장률은 3%를 하회) 규모면에서 세계 5대 생산국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⁵⁾ 나일론의 신제품 개발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 나일론 극세사(micro fiber), 나일론 중공사, 도전성섬유, 부직포, 인공피혁, 축열보온섬유 등 심미성과 함께 고기능 고성능의 섬유가 개발되어 그 응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⁶⁾

이렇게 나일론 산업이 60년대 중반부터 생산이 본격화되고, 그 전시대의 통계자료의 미비로 합성 섬유 및 나일론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1960년대 중반이후부터 다루져 있다. 즉 해방 이후 나일론이 미군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이래 나일론산업이

육성되기까지 약 20여년간 나일론이 우리 의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국내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정리한 자료는 아직 미비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 의해 나일론이 소개된 이래 나일론의 생산이 본격화된 1960년대를 포함한 1970년까지를 나일론의 도입기(1945~1953), 나일론의 수입 및 초기생산기(1954~1957), 나일론 스트레치사 및 직물의 대량생산기(1957~1963), 나일론 원사의 생산기(1963~1970)로 나누어 당시 나일론이 일반인의 의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신문, 잡지의 기사와 광고, 통계치를 수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나일론에 대한 산업계, 정부, 언론 등에 나타나는 현상을 밝혀보므로서 새로운 섬유개발의 중요성, 유행의 사회·경제적 기능과 정부, 산업계, 소비자, 언론의 관계를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II. 나일론산업의 발달과 의생활의 변화

1. 나일론의 도입기(1945~1953)

미국의 듀폰(Du pont)사에서는 1927년에 새로운 과학분야의 개발을 위하여 새 기금을 마련하고 그 연구책임자로 Carothers를 임명하였다. Carothers 연구진은 10년간의 연구끝에 1937년 나일론의 발명을 공표하였고, 이 새로운 섬유로 만들어진 나일론 스타킹이 1939년 말에 첫선을 보였다.⁷⁾

우리나라에 나일론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45년 9월 미군이 진주하면서부터이다. 태평양전쟁으로 의생활이 궁핍하던 중 미군수물자가 대량 범람하였는데 그 중에는 의료로 쓸수 있는 나일론제 낙하산도 섞여 있었다.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으로 나일론을 대하게 되었던 것이다. 젊은이들은 이것으로 머플러를 만들어 목에 감고 다녔으며, 나일론제의 여자 스타킹도 암시장에서 시판되고 있었다.⁸⁾

8.15해방 직후 일본인들의 귀국으로 각 생활용

품의 생산이 중단되어 생필품의 품귀와 가격의 폭등이 심했던 상황이었으므로 미국과 아시아로 부터 섬유제품을 비롯한 각종 구호물자가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도착한 물품은 남녀용 의류와 양화, 스웨터, 스타킹, 고무신 등이었으며, 이밖에도 미국 교회 구제회로부터 구제품 의복이 수송되기도 하였다.⁹⁾ 당시 섬유공업 등 복식문화의 기반이 미약했던 상황속에서 양장재료로 사용되었던 것은 미군계통에서 유입된 사이지(serge)와 낙하산감이었다.¹⁰⁾

1950년 6.25동란에 참전하는 미군병사들에 의해 나일론의 보급은 더욱 늘어났으며,¹¹⁾ 당시 밀수품인 빌로드 치마에 새로나온 나일론 양말을 신는 것이 최고의 멋이었다.¹²⁾ 또한 전쟁중임에도 사치스런 의복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전시생활 개선법을 강력히 실시하기 위하여 1952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협의한 결과 “전시생활 개선법 시행령”에 합의를 보았다. 그 내용을 보면 전시 중 착용,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는 사치품을 발본색원하기로 하고 이중 의류품 항목은 외국산 양단, 벨벳, 하부다이, 오파루, 레이스, 조오젯(georgette), 나일론제품, 포피목도리, 모자, 양산, 핸드백, 화장품, 장신구, 금, 백금, 보석반지 등이었다.¹³⁾

따라서 국내에 나일론 제품이 선보인 것은 8.15 해방 이후 미군이 주둔하고 해외각국의 원조물자가 유입되면서 소개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일론은 6.25를 거치면서 더욱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당시 고가의 사치품으로 정부의 제제를 받던 품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나일론의 수입 및 초기생산기 (1954~1957)

(1) 나일론의 수입

나일론은 여러논란속에서도 어떤 옷감보다도 질기고 가볍고 또한 세탁이 간편하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었다.¹⁴⁾ 사치품으로 수입제한되었던 나일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자

1954년경 상공부는 나일론직물을 비사치품으로 규정하고 정식으로 수입을 허가하였다.¹⁵⁾ 나일론의 수입을 상공부에서 허가할때까지 나일론은 대부분 밀수에 의한 것이었으며, 나일론이 사치품이냐 또는 비사치품이냐 하는 상품의 성격에 대한 견해의 차로 약 2개월 동안이나 수입허가가 보류됨으로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었다. 당시 상공부에서 허가한 것은 단일색무문의 사치성이 없는 것에 한하여 허가하기로 하였다.¹⁶⁾ 수입이 허용되자 한성라사점에서 수입 나일론복지의 광고를 신문에 다음과 같이 게재한 것을 볼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⁷⁾

市民 여러분이 期待하시던 最新柄 나일론服地 遂入荷
나일론服地의 三大特徵

1. 純毛보다 시원하고
2. 家庭에서 마음놓고 洗濯할 수 있으며
3. 純毛보다 三배나 질기고 모양있고 값싼 나일론服地 流行柄은 品切되기 전에 求하십시오.

이렇게하여 나일론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었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나일론은 대부분이 밀수품이었고 정식으로 수입된 나일론이라하더라도 무문단일색이라는 기준을 위반통과한 화려한 것들이 많았다¹⁸⁾고 한다. 또한 당시 10여개의 무역상사와 나사점에서 상공부 허가를 받아 들여온 나일론복지가 가짜나일론으로 판명되어 수입경위를 내사하는¹⁹⁾ 등 가짜나일론까지 등장하여 문제가 된것으로보아 당시 나일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나일론의 수입은 일반 소비자의 많은 수요로 밀수의 성행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여러논란 가운데 정부에서 나일론을 비사치품으로 규정하고 단일색무문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게 되므로써 나일론이 일반에게 더욱 확산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입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수입품이 양적으로 부족하였고 색상의 제한 등으로 인해 일반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여 여전히 밀수품은 성행하였다. 따라서 나일론이 비사치품으로 규정되긴 하였으나 당시의 나일론은 여전히 고가의 제품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나일론 양말 및 나일론 스트레치사(nylon stretched yarn)와 나일론 직물의 생산

휴전이 성립되고 국내산업이 재건되기 시작하자, 전통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던 면방공업은 재빨리 가동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모직공장도 재건 내지 신설되어 그런대로 국내수요를 충당하게 되었으나, 화학섬유만은 여전히 외국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양말을 비롯한 내의 등 2차 가공제품공장들은 비교적 소규모여서 점차 공장이 건설되어 갔으나, 원료생산공장은 엄두도 낼수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나일론은 그 생산과정이 복잡하여 공장건물에 많은 외화와 높은 기술수준이 갖추어져야 하며, 또 소규모 공장으로서 생산규모가 큰 외국의 제품과 원가면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50년대 나일론의 국내수요는 전량 수입이나 밀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특히 밀수에서 매우 인기 높은 품목 중 하나였다.²⁰⁾

우리나라에서는 6.25사변을 전후하여 나일론사를 수입하여 직물과 양말은제조하기 시작하였다. 메리야스업계는 1951년 부터 나일론 양말의 생산을 시도하였는데, 염색시설, 스트레치 기계시설이 여의치 않아 실패를 거듭하였으나 그 후 1954년에 성공을 거두어 외제에 손색이 없는 나일론 양말을 생산하게 되어 대단한 인기를 모았다.²¹⁾ 당시 나일론 양말은 종래의 면, 모, 견의 양말에 비하여 월등하게 견고하여 곧 대중화함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양말제조용의 스트레치 나일론사의 생산을 보게 되었다.²²⁾ 이 때의 스트레치 나일론 제조공정은 대부분 나일론 필라멘트 원사를 가연(twist)하여 열고정(heat set)한 후 다시 해연(untwist)하는 방식을 취하며, 가연 및 해연공정은 이태리식 연사기를 사용하고 열고정은 증기가

압식이었기 때문에 공장설립 및 운전엔 큰 애로가 없었던것 같다.²³⁾

한편 나일론직물은 1954년경까지 외래품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1955년 외국으로부터 원사와 직조기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도 세련된 옷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였다.²⁴⁾ 이때 나일론직물은 태창직물(주)에서 생산하기 시작하여 한국 직물업계의 합섬시대를 개막하기도 했으나 전체 나일론 직물의 일부에 불과 하였고, 곧이어 1957년 선경직물(주)이 나일론 타프타(nylon taffeta)를 생산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사 전량을 외국으로 부터 수입해와야 했기 때문에 항상 원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일이 어려워서 공장마다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곤했었다. 따라서 나일론 값은 곧 금값이었으며,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날로 급증해서 돈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실정이었다.²⁵⁾

따라서 이시기에는 1954년 나일론의 수입과 더불어 1954년 나일론양말과 나일론스트레치사, 1955년 나일론직물의 생산이 가능하였으나 시설의 미비로 나일론은 당시에 고가의 제품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나일론 유행품목

나일론의 출현은 의생활의 일대전환기를 이루었으며, 여성들은 신기하고 간편한 화학섬유에 매력을 느끼고 그 사용폭을 넓혀 갔다.²⁶⁾ 1954년 정부에서 나일론을 비사치품으로 규정하고 정식으로 수입을 할 수 있게 되자 나일론은 여러 의복품목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나일론 제품에 대한 조선일보의 1954년 12월 23일자 (그림 1)과 1955년 7월 30일 기사를 보면 당시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 준다.

나일론 제품

...그 증거가 굵은 여늬에서 울 거리를 찢는 (나일론 선종)을 보면 알것 같다. 치마 저삼은 물론 양말에 장갑에 라이셔즈, 러닝셔즈, 심지어는 슈머즈에 팬츠, 즈르오즈 아니면 못살겠다는 것이 (자칭 문헌인)의 자랑이었다.

(조선일보, 1954, 12, 23)

우리의 문의 주체가 되는 옷저고리, 치마, 바지, 블라우스, 스커트, 원피스를 비롯해서 그의 누속품인 양말, 넥타이, 마후라, 핸드백까지 나이론 옷감, 나이론제품이 우리의 각광을 받으며 시장에 넘쳐흐르게 되었다.

(조선일보, 1955, 7, 30)

이렇게 다양한 품목의 나일론제품이 등장하였으나, 특히 국내에 가장 먼저 도입된 양말과 스타킹이 많이 착용되었다. 또한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량의 부족으로 나일론이 고가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유행품목은 양말이나 한복 같은 외출복이 주를 이루었고, 그 외에 당시의 유행품목이었던 장갑과 나일론 성능의 적합성으로 인해 나일론수영복이 많이 착용되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양말과 스타킹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 나일론제품은 양말이었으며, 1954년도 당시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던 '나일론 양말'의 국내생산이 성공함으로써 메리야스 공업발전에 획기적인 일대전환기를 이루었다.²⁷⁾

당시 나일론양말은 종래의 면, 모, 견의 양말에 비하여 월등하게 견고하여 곧 대중화함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양말제조용의 스트레치 나일론사의 생산을 보게 되었다.²²⁾

한편 스타킹은 일본제의 견사 스타킹으로 부터 시작되었는데, 해방 이후 외국에서 한창 나일론 스타킹의 붐을 일으킬때 우리나라는 미군에서 간혹 유출되는 정도였는데 이것과 해방 이전에 몇장이 신여성들이 애용하던 견사 스타킹이 혼용되던 중에 6.25사변을 맞이 하였다. 6.25사변 이후 양장이 널리 애용되고 여성의 직장진출 증가와 여대생의 대량 배출의 영향 등으로 나일론 스타킹의 소비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여성들의 기호에 만족할 만한 상품이 국내에는 별로 없었으므로 홍콩과 일본 등지에서 밀수입된 나일론 스타킹이 대량유통되었다.

한국에서 스타킹 생산공장을 처음 설치한 곳은

남영나일론이었다. 1957년에 서독에서 생산기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나일론사를 수입하여 원단만을 잔후 재단하여 봉제선이 있는 것이었다. 길어도 무릎아래로 내려오는 7부 스타킹이 고작이어서, 당시의 스타킹은 주로 밀수품이었다.^{29) 30)}

당시의 나일론양말은 혼수품의 필수품이었으며,³¹⁾ 봉제선이 있는 나일론 스타킹은 양장 전체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³²⁾하여 나일론양말과 나일론스타킹은 남녀 의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양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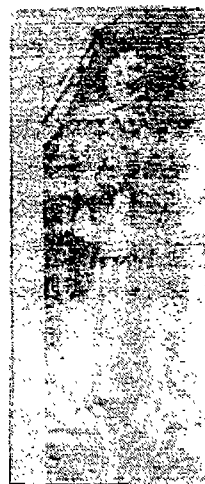
나일론이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된 이후 먼저 유행하게 된 양장은 나일론블라우스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반투명의 흰 나일론으로 된 낙하산 기지가 인기가 높았다. 속옷과 살갓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새 유행이 타이트 스커트와 함께 유행의 물결을 탔다.³³⁾

1955년에서 1956년에는 아코디언 플리츠 스커트와 어깨에 패드를 메고 살짝 세워진 워칼라에 돌만슬리브와 프렌치 슬 리브의 나일론 블라우스가 대단한 선풍을 일으켰다.³⁵⁾



「物心兩面으로 움직이는 虛飾」
「멋관적인 價値는 紳士淑女」

(그림 1) 조선일보,
1954년 12월 13일



(사진 1) 여원, 1995년 12월

나일론은 여름용 블라우스 뿐만 아니라 춘추동복에도 사용되었는데, (사진 1)³⁵⁾을 보면 나일론 피케(nylon pique)로 된 원피스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나일론을 혼직한 사지, 개버딘 등이 양장에 많이 사용하였다고 한다.³⁶⁾

또한 남성복에도 나일론이 나타나게 되는데, 1954년 6월 26일자 조선일보 한성라사의 나일론복지 광고³⁷⁾에서 나일론 바지를 아침에 주문하고 저녁에 착용하도록 서비스하는 봉사품목으로 제공하고 있어, 나일론은 여성양장 뿐 아니라 남성복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한복

나일론은 관리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양장은 물론 한복감으로도 사용하게 되었다.

당시 한복 유행에 대한 고원일³⁸⁾의 기고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벵벵한복의 유행이후 우리나라 여성은 풍미한 것이 나일론한복이었다. 그래서 모든 여성들은 벵벵 치마를 칠패 벗어던지고 나일론으로 몸을 감기 시작했다. 벵벵계는 나일론계가 되고 혼수감에도 나일론이 버젓하게 펴수품이 되었다. 이러한 미제 나일론의 유행에 돌연 도전을 하고 나선것이 익제 나일론이었다. 미제 나일론은 우리나라 여성에 나일론 유행의 바람을 일으키고 그 신속은 익제 나일론이 차지한 것이다. 그 이유는 원색에 가까운 미제 나일론에 비해서 익제 나일론의 무늬는 동양적이어서 한국여성의 구미에 맞는 것이다. 그리고 소복(素服)을 즐기는 여성들에게는 굵보나일론같은 무지나일론이 들어타서 더욱 익제 정대주의의 관념을 부녀자들의 머리에 부식하게 되었다. ...너도나도 나일론바람으로 한국은 천지가 나일론으로 뒤덮이듯하였다. 이어서 딱대할 돈이 나일론 바람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여원, 1960년 9월, 233~234).

표경주,³⁹⁾ 정충량⁴⁰⁾의 글에서도 외양에 치중하고 실질적인면에 충실하지 못한 점이 즉 장보려

나오는데도 나일론 치마 저고리를 입어야 하고 겨울이면 양단 치마저고리를 질질끌고 나오게 만든다고 하여 나일론한복이 특히 여름에 많이 착용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당시 나일론 한복의 형태는 깃, 동정, 섶 등의 각 부위가 길고 넉넉하였으며 고름대신 부로우치나 단추를 달아 착용하였는데,⁴¹⁾ 여기서 특히 깃, 동정, 섶 등의 부위가 넓은 것은 한복의 유행경향에 의한 것이기도하나, 나일론의 성질상 바느질하기가 미끄럽고 울이 잘 풀렸기 때문이라고도 한다.⁴²⁾

(라) 장갑

양장이 유행하면서 1954년경부터 장갑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여름에는 나일론과 레이스의 흰 장갑이 주로 나타났으며, 겨울에는 캐시미어장갑이나 양피장갑, 털장갑 등의 검은 장갑이 유행하였다. 그리고 1957년경 부터 7~8부 정도의 소매가 유행하자 목이 긴 장갑이 등장하는데 손등과 손바닥쪽이 각각 다른 모양의 저지로 만든 장갑이 등장하였고,⁴²⁾ 여름에는 장갑목에 수를 화려하게 놓은 것이 유행하였다.⁴³⁾

1956년 김혜정⁴⁴⁾은 당시의 빨강구두와 함께 검정 장갑이 유행함을 밝히고 검정장갑은 일하는 부인이나 직장여성에게는 적당하지 않으며 가격이 너무비싸다고 하여 당시 검은 장갑이 유행함과 동시에 가격이 매우 고가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수영복

1950년대들어 수영복이 일반화되면서, 나일론 수영복 또한 이 시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1956년 9월 여원에 소개된 <수영복은 화려하게>⁴⁵⁾란을 보면 당시의 울나일론수영복의 등장을 알 수 있다.

...용해같이 해수욕복이 여러가지 천으로 등장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순모제류를 비롯하여, 무명직물을 중심으로 한 고무사탕한 것이나든가, 나일론 터프

타나 사뎌를 사용한것, 울나이롱, 뉴페이스의 아세테이트 등 여러가지가 번화합니다. 인기가 있는 전으로는 종래의 것으로서 나이롱의 타트나 사뎌, 고무사뎌한 것이 많겠습니다라는 입은 기본이 좋고 감촉도 지금까지의 모직에 가까운 전에서 울나이롱이 대부분 환영을 받지 않음까 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나일론의 수입이 허용되고 국내에서 소량으로 나일론양말, 나일론스트레치사와 나일론직물이 소량생산되던 시기에 여러가지 나일론품목이 등장하였으나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양장, 한복과 같은 외출복이나 양말, 스타킹, 장갑, 수영복과 같이 목적상 나일론 섬유는 성능이 요구되는 품목등이 주로 유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나일론 관련기사

나일론이 우리의 의생활에 급속히 확산되고 세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자 나일론에 관련된 기사가 신문과 잡지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기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새로운 직물에 대한 권장보다는 비난 기사가 주를 이루었으며, 새롭고 값비싼 나일론의 세탁및 관리법이 약간씩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여성에게 있어서 이 나일론은 확실히 크나 큰 매력이었다. 하와이해변을 연상시키는 작열하는 태양과도 같은 눈부신 무늬가 우선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유행이 비롯된 시기가 때마침 여름이라 속살이 들여다 보이도록 환히 비치고 얇은 섬유의 교직과 산들바람에도 나부끼는 매력이 청량제와 같은 새맛을 주었다.⁴⁶⁾ 이렇게 나일론이 외출복으로 많이 착용되면서 속이 비치는 투명한 의복의 확산을 초래하자 사회적인 지적의 대상이 되어 잡지기사에 이를 비난하는 기사가 자주 등장하였다.^{47)·48)·49)·50)}

1957년 8월 8일자 조선일보의 기사는 다음과 같았다.

현대의상은 극단적인 노출증에 빠지고 많았다. 첫째

한복은 투명한 나일론이 자리하여 거의 상반신이 거의 다 노출되고 있다. 양장은 어깨까지 노출시키고 심지어는 등의 상반신 까지 노출되어 있다. 이리하여 전차나 버스에서 앉아있다 하더라도 유방의 거의 전부가 노출되어있다. 이리하여 일반인은 물론 여자들 자신들 간에도 비난이 자자하여 의상에 있어서 예의 범절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우선 여교사에게 인체의 노출을 금지할 것이 요구되고, 이와같은 국민생활검소화운동에 호응하여 여교사들도 검소한 복장을 하기로 결의하였다.^{51)·52)} 이에대해 조선일보 만물상⁵³⁾에서는 여교사들보다 여대생들중에 이러한 경교에 해당하는 이가 많다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세평이라고 하였다.

또한 나일론의 폐단으로 사치성 소비로 인한 외화낭비를 우려하는 기사가 자주 등장하였는데, 우선 공무원 가족들의 나일론양말, 오팔나일론을 포함하는 외제품 사용의 금지를 제안하는 기사가 있었다.⁵⁴⁾

표경조⁵⁵⁾는 우선고쳐야할 몇가지라는 기고문에서 의생활 부분에서 한복치마는 서양식 치마에 비해 옷감의 소모량이 많아 낭비를 초래하며 이러한 낭비가 국산이 못되고 외국산의 양단, 나일론, 모직물 등인데는 더할나위도 없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개탄치 않을 수가 없다고 하였으며, 정총량⁵⁶⁾은 한복의 옷감이 수입된 수입품인 양단, 나일론의 착용을 비판하는 글에 남녀하인을 가둬두고 육간대청에서 거닐릴 두차치마를 그나마도 적국산의 양단, 나일론 치마들을 너나 할것 없이 뺄치고 장바닥을 쓰래질하대싶이 입고 다니는 모양은 뜻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수입된 나일론이 선봉을 일으키자 당시의 사치성 소비를 비난하면서 나일론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나일론의 장점, 즉 통기성과 흡습성이 좋지 않음을 보도하는 신문기사가 자주 보였었다.^{57)·58)}

1955년 12월 23일자 조선일보의 나일론기사⁵⁹⁾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나일론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여승엔 바닷이 안통해서 비지땀이 배어나오고 겨울이면 차가웁기가 여름과 같은 것이다. 다만 한가지 장점이 있다면 보기착은 달라 육지 같이 직기다는 것. 그래서 외국에서는 노동자들이나 입는다고...

아울러 나일론의 극성으로 전통여름 옷감인 모시가 밀려나게 된 점을 안타까워하는 글도 신문에 게재되었다.⁶⁰⁾

이렇게 나일론은 투명성으로 인한 노출, 고가의 수입품인 나일론의 사치성소비로 인한 외화낭비, 나일론 성능의 단점, 전통복식문화의 퇴조 등 여러 비난이 쏟아졌으나 여전히 나일론의 편리한 기능성과 새로운 매력에 오히려 사용폭은 넓어져만 갔다.

한편, 새로운 피복재료인 나일론의 보급에 따라 세탁 및 손질법, 착용법에 관한 기사도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61)·62)·63)} 양말과 스타킹에 대한 에티켓⁶⁴⁾도 나타났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타킹을 신고 방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무릎 위까지 복려신은 분은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이때는 주인의 입장에 있는가늠이 재빨리 알아채어서 "편하게 내려신으시지요"라고 가볍게 일러주는 일은 무엇보다도 친절한 대접이 될 것입니다.²⁾

나일론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탁법과 착용법에 관한 기사가 1957년부터 나타나는 것은 이때부터 나일론의 사용을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다.

3. 나일론스트레치사 및 직물의 대량생산기(1957~1963)

(1) 나일론 스트레치사와 직물의 대량생산

국내 나일론공업을 태동시킨 나일론사 스트레치 가공은 1957년 설립된 한국나일론(주)이 1958년 10월에 나일론 스트레치사를 월간 29,000파운드 생산개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⁶⁵⁾ 1960년에는 한국나일론주식회사와, 풍천산업주식회사, 삼덕섬유공업사, 석산섬유공업주식회사에서 외국산을 능가하는 우수한 스트레치 나일론사를 생산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어 마침내 정부에서는 스트레치 나일론사의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게 되었다.⁶⁶⁾ 스트레치 나일론사 제조시설은 점차 증설을 거듭하게 되었고 수출의 일익을 담당하게 이르렀는데 1963년 말 현재 17개회사의 연간생산능력은 3,361,000 파운드에 이르렀다. 이는 우리나라합성섬유발달사의 획기적인 사실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⁶⁷⁾

한편 나일론직물의 생산을 살펴보면, 1955년 태창직물과 1957년 선경직물이 나일론직물을 생산하였으나 그 생산량은 절대 부족한 것이었다. 나일론직물의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59년 3월 선경직물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만불을 대부받아 사이징(sizing)설비를 도입하면서부터였다.⁶⁸⁾ 1955년 나일론이 943천마 생산된 이래 1959년에 이르러는 5,981천마로 6.3배 생산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직물업계는 1960년대에 들어와 과잉생산으로 체화현상은 날로 극심한 가운데 나일론이다 테드론이다 하는 합성직물도 외래품이 범람하는 바람에 품질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었던 국산품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민주당정부가 제정해놓고도 미처 시행하지못했던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1961. 5.10공포)을 7월 14일에 일부개정공포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하므로써 외래사치품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확연한의지를 보였다.

2) 기사의 내용을 보아 당시의 스타킹이 착용시 상당히 불편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외래품으로 지정된 것은 제1종 鮮果 기타 果實類로부터 제19종 가구류 기타잡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치성 생활용품을 망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5종으로 분류된 섬유와 동제품에는 '면포와 동제품, 나일론제품, 내의, 헤어넛(hair net), 브래지어, 양말, 장갑, 셔츠, 팬티류, 레인코트, 기타직물류와 동제품'을 지정하여 외래섬유제품 일체를 판매할 수 없게 했다. 이러한 외래섬유제품의 판매금지조치로 위기국면에 처해 있던 국내섬유업계 사정이 점차로 호전되어 갔다.⁶⁹⁾

따라서 이 시기에는 나일론 양말의 원료인 나일론 스트레치사의 생산과 나일론 직물의 국내 대량생산이 가능하였고 오히려 과잉공급으로 인해 나일론의 가격이 상당히 낮아진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입품에 비하여는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것이었으며,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수입 나일론제품은 여전히 고가의 사치품이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2) 나일론 유행품목

이 시기에는 국내에서 많은 양의 나일론을 생산하게 되자 '나일론의 전성시기'를 맞이하여, 속옷부터 겹옷까지 나일론으로 만들어 입었을 정도였다.⁷⁰⁾ 유행품목을 보면 양장, 한복, 양말과 스타킹, 장갑 뿐아니라 속옷, 손수건, 양산, 침구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양장과 한복과 같은 외출복은 퇴조하고 일용품으로 나일론의 유행품목이 옮겨진 현상을 보이는 시기였다.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양말 및 스타킹

당시 나일론 양말의 생산을 보면 1959년에 생산된 나일론 양말이 5,416,100족이었으며,⁷¹⁾ 1961년에는 11,239,700족, 1962년에는 14,626,400족, 1963년에는 13,964,320족을 나타 내어⁷²⁾ 그 생산량이 점차 증가되어 나일론 양말의 소비가 많았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사진 2) 여원, 1963년 2월

김분칠⁷³⁾의 도회지 신혼부부의 일년간 필요한 의복계획의 내용을 보면 겨울용 양말카바가 제시되어 있고, 또한 여원 1963년 6월호 (사진 2)⁷⁴⁾에 나타난 가정표 양말의 광고를 보면 150번 특수 나일론사로 짠 여학생 카바를 광고하고 있어 일반인의 필수품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타킹 역시 지속적인 인기를 얻어 여성의 필수품이었으며, 봉제선이 있는 스타킹에서 1962년에 기계적인 생산으로 봉제선이 없는 스타킹(seamless stocking)이 남영나일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색상은 살색종류가 많았으며 겨우 10대 정도의 기계로 시작하였다⁷⁵⁾고 한다.

(나) 양 장

이 시기에는 국산나일론의 생산으로 나일론의 가격이 떨어지고, 그 성능상 의외로 부적합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일상의외출복인 양장으로의 유행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각종 패션쇼에서 나일론으로 제작한 새로운 의상이 활발히 소개되었는데,⁷⁶⁾⁻⁷⁷⁾⁻⁷⁸⁾ 일상 외출복보다는 이브닝드레스나 카테일드레스 같은 파티용 드레스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혼례식이 서양화되면서 웨딩드레스가 많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1958년 4월 국산나일론으

로 만든 웨딩드레스가 패션콘테스트에서 1위로 입상하게 되고(사진 3),⁷⁹⁾ 수도여자 사범대학 가정과 여대생들이 구상한 농어촌 개량복 전시회에서 나일론 공단으로 만든 웨딩드레스가 소개되었고⁸⁰⁾ 잡지에서는 베일을 나일론망사로 만드는 방법과⁸¹⁾ 새로운 한복식 결혼의상의 소개에서 보편 옷감을 국산 양단이나 사틴나일론, 갑사 등을 소개하고 있어⁸²⁾ 나일론 웨딩드레스가 일반 혼례복으로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나일론의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나일론이 일상외출복으로서의 유행은 사라지고, 옷감의 량이 많이 소요되는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등의 특수복에 사용가능하게 되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진 3) 여원, 1958년 4월

(다) 한 복

양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나일론 한복의 유행도 소멸되어 가는데 고원일⁸³⁾의 글을 보면

...나중에 국산나일론이 나와서 많은 애용을 받기는 했지만 이미 그때는 나일론 바람이 막바지에 들어선 때였다. 국산나일론의 등장으로 나일론 값이 떨어지고 나일론이보다 실용적인 옷감임을 알게 되자 나일론이 호사가 아니라고 반감심이 생겼는지 새로운 옷감

을 찾게 되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홍릉양단이었다...

즉, 이 시기 한복의 유행은 나일론에서 양단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속 옷

나일론이 대량생산되면서 나일론 속옷도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되었다. 또한 플레어스커트도 부활되었으며 스커트속에 입어 스커트를 과장되게 부풀리기 위한 페티코우트가 소개되기도 하였다(그림 2).^{84)·85)} 이러한 페티코우트의 재료는 나일론 타프타와 망사⁸⁶⁾ 등이었다.

일반 속옷류는 당시 만들어 입기도 하였으나, 슬립, 브레이저, 콜셋, 팬티 등이 면제품과 함께 나일론제품이 판매되었고 대부분의 나일론 제품은 일본이나 미국제품으로 국산에 비해 2, 3배 정도 비쌌으며,⁸⁷⁾ 나일론 잠옷에 대한 소개도 볼 수 있었다.⁸⁸⁾



(그림 2) 여원, 1960년 7월

(마) 기타 용품

이 시기에 유행된 나일론품목은 장갑, 손수건, 양산, 침구로 까지 확대되었다. 당시 양장엔 벨수 없는 것이 장갑이었으며, 여름엔 무엇보다도 흰색의 레이스나 나일론이 착용되었고 새로이 소개된 이브닝 드레스에는 목이 긴 것이 착용되었다.⁸⁹⁾

이러한 나일론 장갑은 1960년대에도 유행을 하게 되는데 1961년에는 524,370, 1962년에는 529,320, 1963년에는 1,936,970매를 생산하여⁹⁰⁾ 나일론 장갑의 유행을 실증해 주고 있다.

당시에는 나일론 손수건도 등장하게 되는데 나일론이 흡습성이 적은 관계로 장식용으로만 사용하여 포켓이나 핸드백의 악세사리나 원피스나 투피스의 액센트로 사용되었다.^{91)·92)} 나일론 양산과 우산도 널리 사용되었으며, 색상이 들어간 나일론 양산은 본견으로 된 양산보다 더 비쌌으며, 나일론 핸드백도 유행하였다.

어린이들의 머리를 묶는 나일론 리본⁹⁵⁾이 많이 사용하였고, 나일론은 의복에서 침구류에도 사용되어 수놓은 나일론이불이 시중에서 판매하였고 실용적이어서 막이불로 권장되었다.⁹⁶⁾ 한편 수영복은 울나일론 제품과 함께 엘라스틱 제품이 등장하였다.⁹⁷⁾

(3) 나일론 관련기사

고가의 사치품으로 노출이 심한 외출복으로 사용되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나일론이 일반에게 대중화되고 다양한 일상용품으로 활용되면서 나일론에 대한 논란은 사라지게 되었다. 오히려 신문·잡지에서는 나일론을 프라스틱의 일종으로 소개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임을 밝히고, 나일론에 대한 올바른 과학적 지식을 전하게 되었으며,^{98)·99)} 나일론의 손질,¹⁰⁰⁾ 보관,¹⁰¹⁾ 세탁법^{102)·103)}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나일론의 사용이 일반화되자 나일론을 포함한 양단, 아세테이트용 세계인 크리날린이라는 세계¹⁰⁴⁾도 등장하였다. 또한 얇은 나일론이나 견 양말은 드레시한 복장에, 두꺼운 것은 스포티한 복장에 착용¹⁰⁵⁾한다는 내용의 나일론 양말의 올바른 착용법도 소개되었다.

4. 나일론원사의 대량생산기(1963~1970)

(1) 나일론원사의 생산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국내의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산업상의 비율이 점차 높아가기에 이르렀고 기간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화학섬유공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까지 발전을 하기에 이르렀다.

5.16혁명은 의생활면에서도 하나의 혁명을 가져다 주었다. 혁명직후 재건국민운동본부가 벌인 복장간소화운동이 보여 주고 있듯이, 가장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의료용 섬유는 합성섬유밖에 없었다. 비싼 모직물이 작업복이나 일상생활복에 적당하지 않으며, 면직물 또한 질기지 못하고 세탁이 불편하여 실용의류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정부당국과 섬유관계 기업인들은 합성섬유의 '자급자족'이 절실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서둘러 공장 건설 계획에 착수하게 되었다.¹⁰⁶⁾

화학섬유공업이 정부가 육성하는 정책적 사업의 위치를 확보함에 따라 한층 화학섬유가 피복재료로서 중요한 대상이 되어 발전하였다. 특히, 합성섬유는 천연섬유에 비하여 우월한 특성이 현대의 다양한 의생활 사조와 의생활 양식에 크게 적용하게 되어 수요가 매년 급증하였다.¹⁰⁷⁾

수출대체 공업의 개발은 1950년대의 주축공업이었던 섬유, 제분, 제당 등이 여전히 미국의 원조 의존적 형태로 발전하였다. 특히 화학섬유공업이 신규공업으로 외자의 도입에 의하여 개발되었음이 특기할 사실이라 하겠다. 화학섬유공업 중 나일론직물과 나일론스트레치사가공에 사용된 나일론 필라멘트사는 그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소요된 외화가 1957년에 3,693천 달러이었으며 매년 약 30%씩 증가하여 1960년 이후에는 6백만달러를 초과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증가추세에 있던 나일론사의 수요량 일부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5개년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섬유생산공장의 건립이 추진되었다.¹⁰⁸⁾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나일론사를 생산하게 된 것은 P.H Carothers가 나일론을 발견한 25년 후인 미국 Chemtex Inc와 기술제휴하에 한국나일론주식회사(Kolon)가 내자 1억5200만원, 외자

320만달러로 대구에 일산 2.5 M/T 규모로 의료를 나일론 6필라멘트 제조시설을 가동하고 난 뒤부터다. 당시 생산품종은 주로 스트레치 가공용인 70데니어와 100데니어였으며, 가격구조는 Kg당 최고 1,892원(70D기준)으로 일본 Toray보다는 13%나 높았고, 현재보다는 48%가 비싸게 거래되었다.

그 후, 64년 4월 한일나일론주식회사가 스위스 Inventa사 및 Uhag사 차관 계약을 체결하여(외자 100만달러, 내자 1억원) 안양에 일산 1.3M/T의 나일론 필라멘트공장을 건설하였으나, 파일럿 규모를 면치 못하였고, 66년 효성물산이 서독 Vikers Zimmer 및 일본 Iton사의 차관으로(외자 460만달러, 내자 3억원) 울산에 일산 7.5M/T의 동양나일론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나일론사의 국제화의 막이 열렸다.¹⁰⁹⁾

나일론 섬유 생산이 시작된 1963년부터 1970년까지 화학섬유의 생산실적을 보면 나일론은 1960년대 후반 아크릴과 폴리에스테일이 생산될 때까지 가장 대표적인 화학섬유로서 1963년 84M/T이었던 것이 1970년 17,428 M/T로 207배나 증가되어 빠른 속도로 생산량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¹¹⁰⁾

(2) 나일론 유행품목

나일론 원사까지 국내에서 대량생산되면서 나일론의 유행품목은 양말과 스타킹, 잠옷과 속옷류로 거의 한정되게 되었고, 의류 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널리 사용되게 되어 그 수요는 날로 증가하게 되었다.

(가) 양말과 스타킹

양말의 경우 1967년까지 내수, 수출 모두 나일론 양말이 주품종이 되어 생산되어 왔으나 여자용 스타킹을 제외한 기타품목은 나일론양말이 점차 퇴조를 보여 폴리에스터 혼방양말이 널리 수요자에게 애용되었다.

여자용 양말에 있어서는 여성 의상의 급속한 유행의 변천과 함께 양장에 있어서 스타킹이 의상의 일부분으로 화하면서 심레스스타킹은 편직과 디

자인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거듭했는데 푸레인메쉬, 마이크로메쉬에서 논런스타킹을 생산하고 있으며 여기서 한층 더해서 스타킹 착용시의 여러가지 불편을 덜어주고 미니스커트와 핫팬티에 적합한 팬티스타킹까지 생산되고 있어서 매우 다양한 제품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원사는 나일론 20데니어, 30데니어, 50~70데니어 나일론사를 주로 사용하였다.^{111)·112)}

(나) 잠옷과 속옷

나일론이 대량생산되고 각종 경편직의 원단기계기술 도입으로 나일론 원단을 사용한 잠옷과 속옷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64년부터 남영나일론의 속옷광고¹¹³⁾가 등장하게 되며, 새로운 나일론 잠옷과 속옷류도 유행란에 소개되었다(사진 4).¹¹⁴⁾



(사진 5) 여원, 1965년 5월

(다) 기타제품

이 시기에는 나일론이 의류 뿐만 아니라 나일론사의 제2차제품인 타이어코드(tire-cord) 등 공업용, 민수용, 군수용 등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시작하여,¹¹⁵⁾ 나일론 원사는 레저용품, 각종시트, 타이어코드, 어망 등으로도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¹¹⁶⁾

(4) 나일론 관련기사

이 시기는 나일론이 대량생산되고 일반 의류용

에서 산업용으로 확대되는 시기로 나일론이 새로 소개되고 인기가 절정에 이르던 시기에 비하여 관련기사는 적게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합성섬유에 대한 소개¹¹⁷⁾와 나일론 관련업체들이 생겨남에 따라 기사보다는 광고가 많이 등장하게 된다. 또한 나일론이 국내에 소개된 이후 지속적으로 유행되어 나일론제품의 자리를 확고히 한 스타킹과 속옷류는 새로운 유행정보에 관련된 기사^{118)·119)·120)}가 많이 게재되었다.

Ⅲ. 결 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에 나일론 제품이 선보인 것은 8.15해방 이후 미군이 주둔하고 해외각국의 원조물자가 유입되면서 소개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6.25를 거치면서 더욱 알려지게 되었고, 1954년 수입이 정식 허용되면서 의생활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일론이 국내에 소개된 이래 나일론원사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시기에 나타난 현상을 요약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이상을 통해 볼때 본 연구에서는 신소재의 개발과 도입이 한 국가의 섬유산업과 의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 나일론이 소개된 이래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자리하게 되기까지 주도한 것은 소비자였다고 볼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서 나타난 현상에 따라 업계, 정부, 언론이 태도를 바꾸게 된것을 볼 수 있어 소비자의 욕구 파악은 신소재 개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나일론이 사치품으로 시작하여 유행현상이 먼저 나타나게 되고 그 이후에 대량생산이 되어 필수품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일반인의 복식유행이 거의 소멸된 시기에 나일론의 대량생산 시설이 갖추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일론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일론의 용도가 다양하다는데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나일론의 도입 및 나일론 산업의 발달에 따른 현상

	나일론 도입기 (1945~1953)	나일론의 수입 및 초기 생산기 (1954~1957)	나일론스트레치사 및 직물의 국내 대량생산기 (1957~1963)	나일론원사의 대량생산기 (1963이후)
나 일 론 유행제품	양말, 머플러	블라우스, 양장, 한복, 양말, 스타킹, 장갑, 수영복	양말, 스타킹, 속옷, 잠옷, 웨딩드레스, 파티드레스, 장갑, 손수건	장갑, 양말, 스타킹, 속옷, 잠옷, 안감, 타이어코드, 어망
가 격수준	고 가	고 가	증 가	저 가
여 론	사치품으로 비난	노출, 사치성소비, 성능의 단점, 전통복식문화의 퇴조등에 대한 비난. 세탁 및 손질법, 착용법소개 시작	필수품으로의 소개, 과학적 지식전달, 손질, 세탁, 보관, 착용법.	산업관련기사, 새로운 유행정보
정 부	수입금지, 착용규제.	수입허용, 착용자제, 공무원, 교사의 착용제한	외국직조기, 원사가공기 수입지원, 수출장려	원사생산시설 적극지원, 수출장려.
광 고	라사점직물광고	양장점 광고 및 홍보	양말, 스타킹광고	나일론 회사 광고, 잠옷, 스타킹광고

미리나 새로운 소재의 개발은 용도의 다양성을 고려한 필요가 있다고 보며, 역으로 용도가 제한적인 소재가 유행현상을 나타내는 시기에 새로운 투자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의 나일론 유행과 산업의 발달과정이 선진국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통하여 섬유산업의 정책수립은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사치품, 과소비 현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혁신시 재력가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가지만 그들에게 분체의 원인을 돌리기 앞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증가의 신호로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며, 사회전반의 욕구충족을 위한 산업체의 기술향상, 교육 및 연구개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Nylon to Korean Clothing Life and Textile Indus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influence of nylon to Korean clothing and textile industries from 1945 to 1970. To achieve this purpose, newspapers, magazines, advertisements, and industrial statistics were surveyed and reviewed.

The result showed that nylon products were presented at first by US army in 1945 and diversified through Korean War. The influence of nylon to clothing life were increased by the point of import of nylon in 1954. After the import of nylon filaments in the period 1957-1963, the need of consumers lead the mass products of nylon from 1963.

참고문헌

- 1) 이은영, 패션마케팅, 서울 : 교문사, 1990, pp. 50~51.
- 2) 김상용, 명주에서 싹튼 화섬산업, 한국의 화섬산업, 한국화섬협회, 1993, pp.51~53.
- 3) 동양나일론 주식회사, 동양나일론 10년사, 1976, p.92.
- 4) 동양나일론 10년사, 전계서, p.92.
- 5) 유원규, 나일론 F 현황과 전망, 화섬, 한국화섬협회, 103호, 1994, 12월호, pp.20~21.
- 6) 성백주, 동양나일론(주)의 신제품개발현황, 화섬, 한국화섬협회, 105호, 1995년 6월호, pp. 54~66.
- 7) 남상우, 피복재료학, 서울 : 수학사, 1984, p. 159.
- 8) 코오롱 20년사 편찬위원회, 코오롱 20년사, 서울 : 주식회사 코오롱, 1977, p.72.
- 9) 박길순, 한국 현대 여성복식의 발달에 미친 요인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100.
- 10) 조선일보, 1948. 8. 14.
- 11) 선경그룹홍보실, 선경 40년사, 서울 : 선경그룹, 1993, 185.
- 12) 유수경,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서울 : 일지사, 1991, pp.275~276.
- 13) 조선일보, 1952. 8. 31, 공포될 생활개선법시행령.
- 14) 선경그룹홍보실, 전계서, p. 185
- 15) 한국일보, 1954. 6. 17. 나일론은 비사치품.
- 16) 한국일보, 1954. 6. 17. 나일론은 비사치품.
- 17) 조선일보, 1954. 6. 24. 한성라사점 광고.
- 18) 조선일보, 1954, 1954. 12. 23. 나이롱
- 19) 조선일보, 1954. 8. 7. 가짜 나일론복지.
- 20) 동양나일론 10년사, 전계서, p.92.
- 21) 김의노, 한국메리야스공업편람, 서울 : 대한메리야스공업협동조합회, 1966, p.177.
- 22) 섬유년보, 대한방직협회, 1964, p.38.

- 23) 윤문구, 박연홍, 나일론시대가 막을 올려서 지금까지, 한국의 화섬산업, 한국화섬산업협회, 1993, pp.173~174.
- 24) 석주선, 10년동안의 여성계변천, 서울신문, 1959. 12. 12.
- 25) 선경 40년사, 전게서, pp.185~195.
- 26) 코오롱 20년사, 전게서, p.72.
- 27) 김지완, 현대패션에서의 레그웨어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28.
- 28) 섬유년보, 대한방직협회, 1964, p.38.
- 29) 조선일보, 1964. 9. 6. 박길순, 전게서, pp. 160~161에서 재인용.
- 30) 김지완, 전게서, p.28.
- 31) 여원, 신혼부의 양장스케줄, 1957. 10. p.271.
- 32) 석주선, 경조 때의 양장, 여원, 1957. 6. p.270.
- 33) 유수경, 전게서, p.226.
- 34) 박영자, 우리나라 현대 여성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9.
- 35) 여원, 1955년 12월.
- 36) 박은희, 유행은 개성에 맞도록, 여원, 1957. 6 월, p.268.
- 37) 조선일보, 1954. 6. 26. 한성라사 나일론 복지 광고
- 38) 고원일, 치마 저고리의 유행 오십년, 여원, 1960년 9월, p.233.
- 39) 표경조, 우선 고쳐야할 몇가지, 여원, 1956. 10, p.42.
- 40) 정충량, 생활양식의 새로운 소개, 여원, 1959. 10, p.51.
- 41) 김연선, 광복 이후 여자 한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40.
- 42) 유수경, 전게서, p.311.
- 43) 김연선, 전게서, p.48.
- 44) 김혜정, 생활미와 유행미, 조선일보, 1956. 4. 26.
- 45) 여원, 수영복은 화려하게, 1956년 9월호.
- 46) 고원일, 전게서, p.233.
- 47) 김용환, 나이롱열풍시대, 신태양, 1954. 8, 134~135.
- 48) 김혜정, 전게서.
- 49) 최만실, 올여름 양장표정, 동아일보, 1956. 8. 23.
- 50) 조선일보, 어떻게 보는가? 노출증, 1957. 8. 8.
- 51) 남윤숙, 한국 현대 여성복식제도의 변천과정 연구, 복식, 한국복식학회지, 제14호, p.110.
- 52) 경향신문, 복장은 소박하게, 1959. 7월 14일.
- 53) 조선일보, 만물상, 1957. 5. 4.
- 54) 조선일보, 1955. 1. 11. 공무원부터 생활개선.
- 55) 표경조, 전게서.
- 56) 정충량, 전게서.
- 57) 동아일보, 1955. 6. 29. 비단과 나이롱과 인체.
- 58) 김난공, 모시와 나일론, 조선일보, 1955. 7. 30.
- 59) 조선일보, 1955. 12. 23. 나이롱
- 60) 김난공, 전게서.
- 61) 서병권, 여름옷 세탁, 여원, 1957. 6. p.268.
- 62) 여원, 1957. 8. p.272, 나일론 옷감의 손질법.
- 63) 여원, 1957, 11, p.279, 나일론스타킹 짜는 법.
- 64) 여원, 1957. 9. 265, 에티켓-양말.
- 65) 한국화섬협회, 한국의 화섬산업, 1993, p.943.
- 66) 섬유년보, 1964, p.38.
- 67) 윤문구, 박연홍, 전게서, p.174.
- 68) 선경 40년사, 전게서, pp.195~197.
- 69) 선경 40년사, 전게서, p.209.
- 70) 김연선, 전게서, p.46.
- 71) 섬유년보, 대한방직협회, 1960, p.51.
- 72) 섬유년보, 대한방직협회, 1964, p.31.
- 73) 김분칠, 다급한 과학적인 의생활, 여원, 1961년 2월, p.117.
- 74) 여원, 1963년 6월호 가정표 양말 광고.
- 75) 김지완, 전게서, p.28.
- 76) 여원, 1958년 7월, 하기 노라노 패션쇼.

- 77) 여원, 1958년 12월, 실용성을 주로한 패션쇼.
- 78) 여원, 1961년 4월, 새로운 디자인 봄의 감각.
- 79) 여원, 1958년 4월, 제1회 패션콘테스트 입선작.
- 80) 여원, 1959년 2월, 여대생들이 구상한 농어촌 개량복.
- 81) 여원, 1959년 10월, p.276, 결혼식에서 신혼여행까지의 비용.
- 82) 여원, 1960년 3월, pp.295~297, 새시대의 결혼의상.
- 83) 고원일, 전계서, pp.233~234.
- 84) 노라노, 양장과 속옷, 조선일보, 1957. 8. 23.
- 85) 김수정, 1950년대 이후 한국패션의 변천과 그 양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26.
- 86) 여원, 1960년 7월, p.354, 페티코오트.
- 87) 여원, 1959년 7월, p.364.
- 88) 손경자, 잠옷과 그 디자인, 여원, 1961년 2월, pp.361~363.
- 89) 여원, 1959년 7월, pp.221~222, 여름철의 악세사리.
- 90) 섬유년보, 1964, p.1964.
- 91) 여원, 1929년 7월, pp.221~222, 여름철의 악세사리.
- 92) 여원, 1960년 5월, p.270, 유행되는 손수건 갖가지.
- 93) 여원, 1960년 7월, 여름철의 악세사리-파라솔과 핸드백.
- 94) 여원, 1961년 6월, p.330, 쇼핑가이드-우산.
- 95) 여원, 1959년 3월, 예쁜 얘기, 예쁜 리본.
- 96) 최경자, 신부교실-의생활계획, 여원, 1962년 10월, pp.280~283.
- 97) 임진상, 바다가의 옷차림, 여원, 1960년 8월, p.398.
- 98) 노익삼, 플라스틱과 일상생활, 조선일보, 1959. 1. 24.
- 99) 여원, 1963. 10. p.369, 합성섬유란 무엇일까요?
- 100) 석주선, 모시옷과 나일론 손질, 여원, 1958. 9. 27. pp.271~271.
- 101) 여원, 1958. 10. 여름살이 간수-나일론.
- 102) 여원, 1960. 6. p.294, 화학섬유 옷 세탁법.
- 103) 여원, 1961. 7. pp.314~316, 나일론의 세탁.
- 104) 여원, 1962. 2월, p.281. 크리날린 광고
- 105) 박응우, 양말과 구두, 여원, 1962. 6. p.295.
- 106) 동양나일론 10년사, 전계서, p.93.
- 107) 고광림, 우리나라 화학섬유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제10권 2호, p.234.
- 108) 허재희, 한국섬유산업의 발달과 한국 여성 의상의 변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p.4~5.
- 109) 동양나일론 기술연구소, 우리나라의 나일론 조사, 동양나일론 10년사, p.561.
- 110) 허재희, 전계서, p.
- 111) 섬유년보, 대한방직협회, 1971, p.138.
- 112) 박길순, 전계서, pp.230~231.
- 113) 여원, 1964. 1. 남영나일론 속옷광고.
- 114) 여원, 1965. 5. 봄을 위한 퍼레이드.
- 115) 섬유년보, 전계서, 1964. p.40.
- 116) 동양나일론 10년사, 전계서. 부록화보
- 117) 여원, 1964. 6. pp.356~365, 화학섬유에 관한 지식.
- 118) 조선일보, 1964. 9. 6. 비틀스타킹-뉴욕아가 씨들 사이에 대유행.
- 119) 조선일보, 1966. 11. 13. 무늬 컬러스타킹의 땀시탐방.
- 120) 조선일보, 1970. 11. 9. 무다리 미니엔 짙은 컬러 스타킹.